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우수 수료자

Packaging Professional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가 3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11주간 진행한 제 21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 교육 결과, 총 100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번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주)엘지생활건강 박수연 연구원이 총점 100점 만점에 94.1점을 획득, 최고성적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주)정식품 이승구 과장과 (주)필맥스 이현재 주임이 각각 2등과 3등으로 수료했다.

한국포장협회는 정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하나인 인력양성(포장분야)을 목적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제21기 포장기술 관리사를 포함, 그동안 총 1천7백22명을 배출했다.

본 고에서는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우수 수료자들의 활약상을 살펴 본다.

포장기술관리사 수료 통해 업무 활용 포장업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박수연
(주)엘지생활건강 연구원

(주)엘지생활건강의 박수연 연구원이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 결과, 1백점 만점에 94.1점을 획득, 총1백명의 수료자 가운데 1등으로 수료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그래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낸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기쁘네요.”

LG생활건강에 입사 후 포장연구부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박수연 연구원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통해 포장의 분야와 내용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포장’이라는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방대한 종합과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포장과 관련해 체계적인 공부が必要하겠다는 생각 끝에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됐다.

“막상 지식을 배우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11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박수연 연구원은 매주 과제 메일이 날라와서 은근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고, 주중에 업무를 동일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부담이 되기도 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한주 한주 지나면서 새로운 포장의 분야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느끼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11주간의 기간동안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서 통신교육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해서 제출을 마치는 경우

도 많았다는 그녀. 매주 쏟아지는 과제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부담에 앞서 매 주마다의 새로운 포장 분야에 대한 정보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책에서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알아갈 때는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느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박수연 연구원은 추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 동영상 강의가 함께 병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로 제작이 되어서 강사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강조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실생활의 예를 함께 넣어 주신다면 제가 책을 통해 어렵듯이 알게된 이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생활용품(샴푸, 린스, 헤어에센스, 바디로션, 바디워시 등)의 플라스틱 용기 및 기타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박수연 연구원은 포장기술관리사 수료를 계기로 향후 여기서 배운 지식을 더욱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포장연구부문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저는 포장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만큼 포장산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장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 단체에서, 회사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포장 분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에 대한 업무를 시작으로, 어느새 포장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녀는 앞으로 포장 분야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계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포장업계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포장기술관리사 최고성적 수료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나도 마음먹고 열심히

매달린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만큼, 지난 11주간의 과정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습득 및 개념 정리 할 수 있어 포장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되기를



이 승 구
(주)정식품 과장

“교육 신청 전, 교육기간 동안 나름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착실하게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가지지 못해 수료하는 것만을 목표로 두었는데 뜻밖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 결과, 총점 1백점 만점에 93.2점을 획득, 전체 수료자 1백명 가운데 2등으로 수료하게 된 이승구 (주)정식품 과장은 생산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 1등 품질의 두유를 생산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는 식품기술 분야와 더불어 포장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도전, 연구,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 아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연관 지식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려 항상 애쓰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포장기술 부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부족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는 그는 포장기술

관리사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포장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11주간의 통신교육 기간동안, 매주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교육 신청자들에게 수월한 일은 아닐 터.

이승구 과장 역시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토로했다.

“매주 수행하여야 할 학습량과 제출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분량이었고, 과제의 정시 제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다고 느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목표인 저의 각오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이 되어 교육수료를 향해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11주가 지난 지금 오히려 뿌듯함이 남습니다.”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습득과 정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과정이라든지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포장기술관리사 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홍보를 지속하여 산업계 및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이 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포장기술 부분의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포장기술은 단순한 제품 보호와 상품성 유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가치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는 이승구 과장은 앞으로도 포장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통해 자기개발 성취 포장업계 선도하는 영업인 되고 싶어



이 현 재

(주)필맥스 내수영업 주임

(주)필맥스 이현재 주임이 제2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1백점 만점에 92.3점을 획득, 3등으로 수료하게 됐다.

“뜻밖의 결과에 매우 기쁘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장업계를 천직으로 여기고 생산부터 물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포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포장이 단순히 물건을 싸는 행위에서 벗어나 산업분야에서 어떠한 영역으로까지 뻗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현재 주임은 현재 OPP, CPP, SPP 등 PP필름 생산업체인 (주)필맥스에서 내수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레토르트 파우치, 합성지, 각종 보호용 기능성 필름 등을 접하다보니 비단 PP필름 뿐 만 아니라, PET, PE 등 여타 폴리올레핀 계열 필름, 더 나아가 종이, 골판, 유리, 캔 등 각종 포장재에 이제 막 호기심과 알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포장기술관리사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는 그는 “아직은 필름 인더스트리에 있어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향후 필름을 넘어서 각종 포장재 전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포장업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영업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업무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병행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 자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만족감도 느낄 수 있었다는 이 주임은 한 주 한주 공부하며 그동안 알고 싶었던 내용,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며 점점 즐겁게 교육

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현재 주임은 향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수चना 용어 등 암기 위주의 답안 작성에서 벗어나 경험을 토대로 포장업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논술형 답안 형태로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면서 수료자들에게 각종 전시회나 생산현장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포장관련 용어들을 접하다 보면 일본식 외래어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던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이 주임. 그는 포장협회에서 출판물 혹은 교육을 통해 포장용어의 통일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덧붙여 그는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마케팅을 극대화 시키는 포장, 첨단 소재 포장 등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사 후 (사)한국포장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포장계를 보게 되었다는 이현재 주임은, 우연찮게 포장기술사들의 합격 후기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나도 이 업계에 뛰어들어 이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나중에는 기술사 자격증도 따보자”라고 다짐하게 됐다.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우수수료자로 선정되면서 국가 공인 기술사와는 다르지만 처음 가졌던 목표에 한발 가까워진 듯 하여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처음 통신교육 지원부터 11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사장님 이하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함께 교육을 수료한 모종선 차장님, 조도연 대리님께 고생 많으셨고 운 좋게 성적우수자로 혼자 뽑히게 되어 민망하며 한 톱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포장업계를 선도해 나갈 영업인으로 자리 매김 하고 싶다는 이현재 포장기술관리사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